

한국 개발컨설팅 ODA 사업 발전 방안

－ DEE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 현 주 (외교부 ODA 선진화팀 3등서기관)

목 차

1. 들어가며
2. 개발컨설팅 현황 및 과제
3. 개발컨설팅 추진 방향 및 전략
4. 맺으며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개도국에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룩한 사회발전 및 민주화와 관련한 경험을 자국의 발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사업을 ODA 사업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 기획, 발굴, 집행, 평가 전 사업 단계에 걸쳐 개발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 높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비율¹⁾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술협력 품질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할

1) 2011년 OECD DAC 통계를 보면 양자무상원조 중 기술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DAC 회원국(24개국) 평균은 19.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9%로 약 2배 이상 높은 상황

수 있도록 지식기반 ODA 사업으로서 개발컨설팅사업을 발전시켜 국제사회 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우리의 경제·사회·정치적 발전 경험을 개도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개발컨설팅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우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부는 개발컨설팅사업 활성화와 인력양성 및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그간 프로젝트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KOICA의 정책자문, 개발조사 사업을 개발컨설팅사업으로서 유형화한 후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KOICA 개발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 ODA 사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2. 개발컨설팅 현황 및 과제

가. 개발컨설팅 정의

국내외적으로는 개발컨설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²⁾는 개발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을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사업의 한 형태로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및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컨설팅사업이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컨설팅은 사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표1>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2) 2012년 3월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 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 결과의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 평가결과’ 중

〈표 1〉 개발컨설팅사업 유형

정책자문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	
	사전 단계	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 KSP - KOICA 정책자문 - 방통위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F/S - KOICA F/S - KOICA 개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 KOICA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도한 개발컨설팅사업 유형화는 세계은행의 ‘컨설팅 서비스’ 분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통계보고 지침에 따른 우리나라의 DAC 통계 보고 현황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OECD DAC은 개발컨설팅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OECD DAC의 통계 보고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개발컨설팅을 기술협력으로 보고 중에 있다. 아울러, 기술협력에 대한 OECD 정의를 따르면, 기술협력은 단독기술협력(FTC,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과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 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로 구분된다. 이러한 OECD 통계 체제를 감안하여 외교부는 현재 우리의 개발컨설팅을 〈표 2〉와 같이 기술협력 중 단독기술협력(FTC)에 해당되는 개발컨설팅사업과 기술협력 중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에 해당되는 개발컨설팅서비스로 구분하여 개발컨설팅을 유형화하고 있다.

〈표 2〉 개발컨설팅 범위별 내용

	개발컨설팅	
	개발컨설팅사업	개발컨설팅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정책 및 전략 수립 등 ○ 기술자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 사업 설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심사, 발굴, 프로젝트 수행전 타당성 조사 등 ○ 프로젝트 실행 및 사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및 감리 (PMC, CM) - 중간 및 종료 평가 - 프로젝트 내 교육훈련 등

* 마스터플랜수립은 정책자문사업과 기술자문사업 모두에 해당

이에 따라, 외교부는 KOICA가 기존에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자문사업과 기술자문사업 성격의 개발조사사업, 그리고 여타 ODA 시행부처·기관의 정책자문사업을 개발

컨설팅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밖에 프로젝트의 사전, 실행, 사후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은 개발컨설팅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나. 개발컨설팅사업 추진 현황

개발컨설팅사업은 KOICA와 국내 여러 부처들이 소관 분야의 발전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중에 있다. 매년 우리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개발컨설팅은 2012년부터 프로젝트, 봉사단, 초청연수와 같이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되어 기술되고 있으며, 2013년도는 KOICA를 비롯하여 6개 기관이 26개국을 대상으로 58건(총 607억)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대비 개발컨설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증가('12년³⁾ 6.5%→'13년 8%)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3년도 KOICA의 DEEP 프로그램의 규모는 385.6억원으로 총 53건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개발컨설팅사업은 지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평가에서 사업 발굴·선정과정에서 기관간 협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동일한 국가에서 유사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 분과협의회」에서 사업유형별 또는 국가별로 개발컨설팅사업 시행부처간 사업의 중복성 검토 및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여러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개발컨설팅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다. 개발컨설팅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 필요

개발컨설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가 그러하듯 개발컨설팅 시장규모가 일정정도 수준이 되어야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참여가 개발컨설팅 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유관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개발컨설팅은 KOICA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 절대적인 양적 발주 건수면에서 시장

3) 2012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은 8개기관이 16개국가를 대상으로 40여건(462억원)총의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

규모는 크지 않다. 이러한 작은 시장은 국내 전문인력 및 기관들이 개발컨설팅 시장에 참여하여 사업경험을 축적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컨설팅 시행기관이 될 수 있는 국내 잠재적 집단이 참여하여 이익과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 개발컨설팅 시장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수요 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개발컨설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및 중소기업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ODA 및 개발컨설팅과 관련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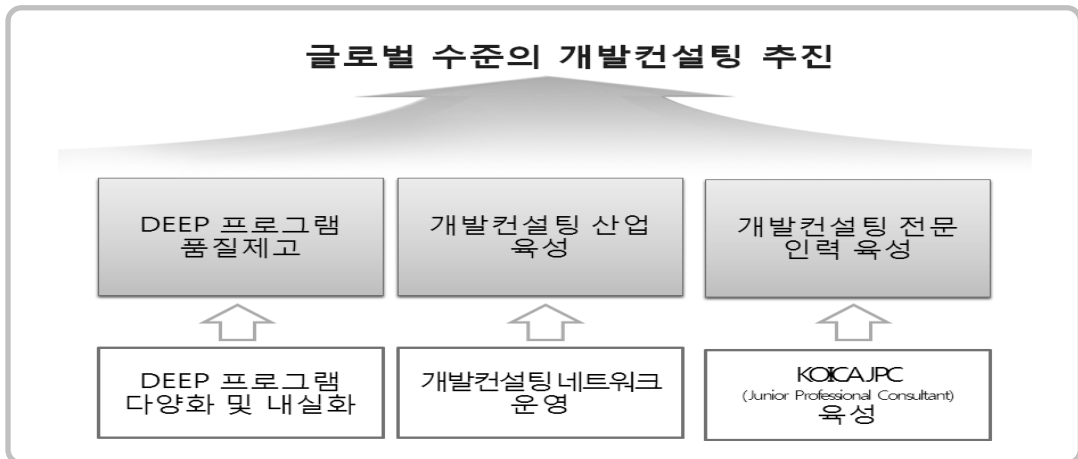
라. 개발컨설팅 인력 양성 필요

우리나라는 ODA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여국으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개도국 원조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개발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개발컨설팅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축적된 분야별 전문인력은 많으나,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국제 원조규범 및 ODA 사업, 개도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개발컨설팅사업이 고도의 지식축약 사업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개발컨설팅사업은 여타 프로젝트형 사업과 달리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개도국의 정책 또는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는 만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의 품질을 좌우하고,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개발컨설팅 추진 방향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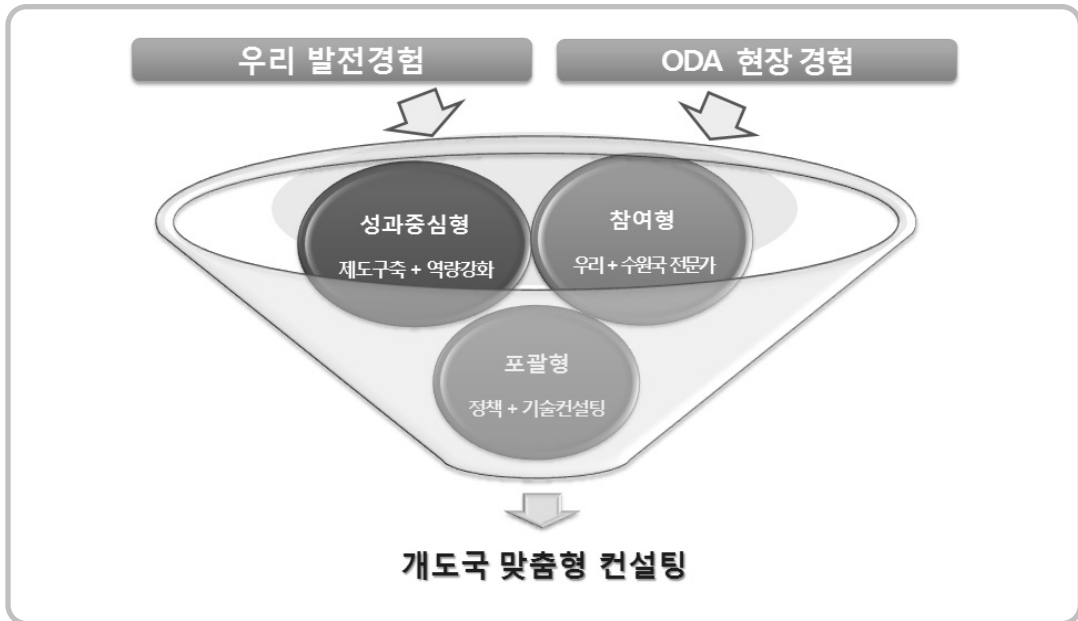
〈그림 1〉 개발컨설팅 추진 전략



가. 개발컨설팅사업(DEEP 프로그램) 품질 제고

국내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컨설팅사업은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으로서 개발컨설팅사업이 협력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전경험과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에 따라 협력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또는 기술 자문사업을 최적화하여 추진할 때 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DEEP 프로그램은 〈그림2〉와 같이 우리의 발전경험과 KOICA가 지난 20여년의 현장 원조사업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녹여낸, 개도국 맞춤형 컨설팅(Country Tailored Consulting)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DEEP 프로그램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서 협력국 인사가 참여하여 협력국 상황에 맞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컨설팅(Participatory Consulting), 제도구축 뿐 아니라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까지 고려한 성과중심형 컨설팅(Result-Oriented Consulting), 정책자문 뿐만 아니라 기술자문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컨설팅(Comprehensive Consulting)을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사업발굴, 시행과정에 잘 반영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DEEP 프로그램이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개발컨설팅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DEEP 프로그램 개념도



아울러, 협력국의 다양한 컨설팅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DEEP 프로그램을 보다 유연하게 협력국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그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를 협력국 주요 부처 또는 정부기관에 파견하여 직접적인 정책이나 기술적인 것을 자문하거나, 또는 개도국 자국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내 전문가 그룹과 워크숍, 토의하면서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초청연수사업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초청연수사업 고도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교부는 KOICA와 함께 협력국 수요에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정책·기술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DEEP 프로그램 유형을 다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DEEP 프로그램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과는 다른 컨설팅 사업인 만큼, 사업 발굴, 사업자 선정, 집행, 평가, 사후관리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프라가 중심이 되는 여타 KOICA 프로젝트형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평가와 기술 평가 배점이 각각 2 : 8로 진행되는데 반해, DEEP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용역의 경우 품질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평가의 비중을 1 : 9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DEEP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타 인프라중심의 사업이 공정률, input 대비 output 등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과는 달라야한다. 실제 DEEP 프로그램을 통해 협

력국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고 성과를 냈느냐 평가하는 것은 당초 계획한 정책 또는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느냐가 아닌, DEEP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협력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제언이 실제 그 나라 정부의 정책이나 국책사업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반영될 계획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인프라중심의 사업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KOICA의 사후관리기준 제정시 사후관리 기간을 일반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종료 후 7년 이내로 두었지만, DEEP 프로그램은 3년으로 두는 등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적 접근을 시행하려고 하고있다.

아울러, 개발컨설팅사업 또한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틀 내에서 여타 ODA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개발컨설팅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발컨설팅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나.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국내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산업 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되어야지 내실있는 개발컨설팅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발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확보되어야 상호간의 경쟁 및 교류를 통해 개발컨설팅사업의 품질도 제고될 수 있고, 글로벌 수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개발컨설팅사업은 우리 기업이 국제조달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조달시장 규모가 2011년도 기준 다자개발은행이 270억불, UN 조달시장 규모가 143억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 6천만불 수준의 우리 개발컨설팅사업 규모, 그리고 20억불 수준의 우리 ODA 규모와 비교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조달시장은 훨씬 크다. 국제조달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진출이 용이하지 않지만 진출 후 좋은 신용을 얻게 되면 안정적 수주가 가능하고 기업의 대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출시 우리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그렇기에 ODA 사업으로서 개발컨설팅사업이 성과를 내어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ODA 사업 참여 경험을 쌓아 해외 원조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여 국제조달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일거양득의 결과를 낼 수 있기에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개발컨설팅 산업육성을 위해 외교부는 KOICA와 함께 2013년 2월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개발컨설팅 네트워크(DCN, Development Consulting Network)는 개발컨

설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느슨한 협의체로 DEEP 프로그램 및 국내 개발컨설팅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개발컨설팅기관 육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면서, 국내 개발컨설팅 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총회, 주제별 포럼, 분과 모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KOICA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컨설팅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컨설팅 기관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ODA 개발컨설팅사업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규·중소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⁴⁾하여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컨설팅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컨설팅사업 규모 확대와 함께 개발컨설팅기관의 수익성보장을 위해 일괄 용역 기회 확대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일괄 용역원칙 및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컨설팅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업컨설팅 포럼,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KOTRA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유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업입장에서 우리 원조사업 참여 경험이 국제조달시장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 ODA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3〉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과 ODA 사업 성과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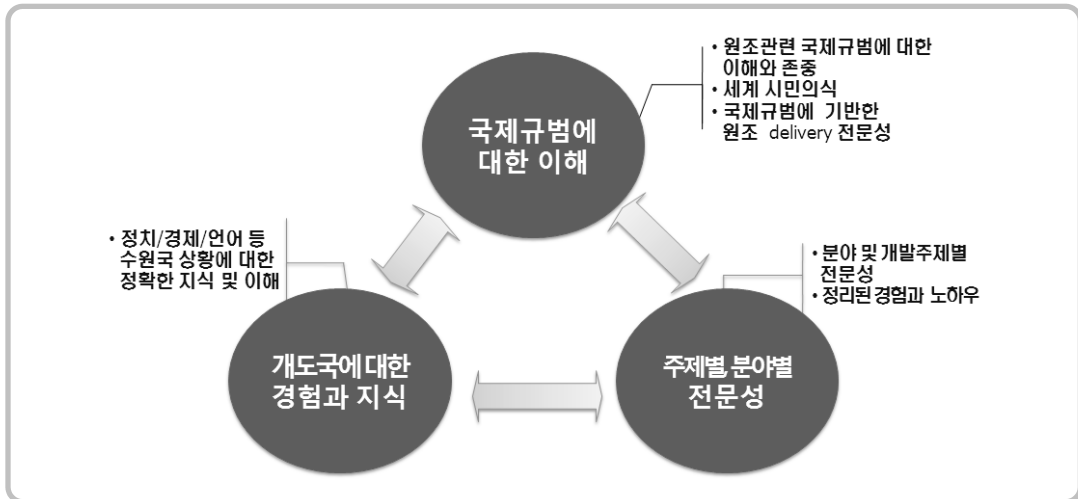


4) 2011년 KOICA 협력업체(Vender list)로 자본금이 소액(1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등록 할 수 있도록 KOICA 협력업체 심사기준 개편

다. 개발컨설팅 전문 인력 육성

개발컨설팅은 고도의 지식축약 사업으로 우리의 발전경험과 ODA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 협력국가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개발협력 3대(△국제규범, △국가 및 지역, △분야별·주제별) 전문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컨설팅 인력들이 이러한 3대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KOICA ODA 교육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육 콘텐츠 개발 등 KOICA ODA 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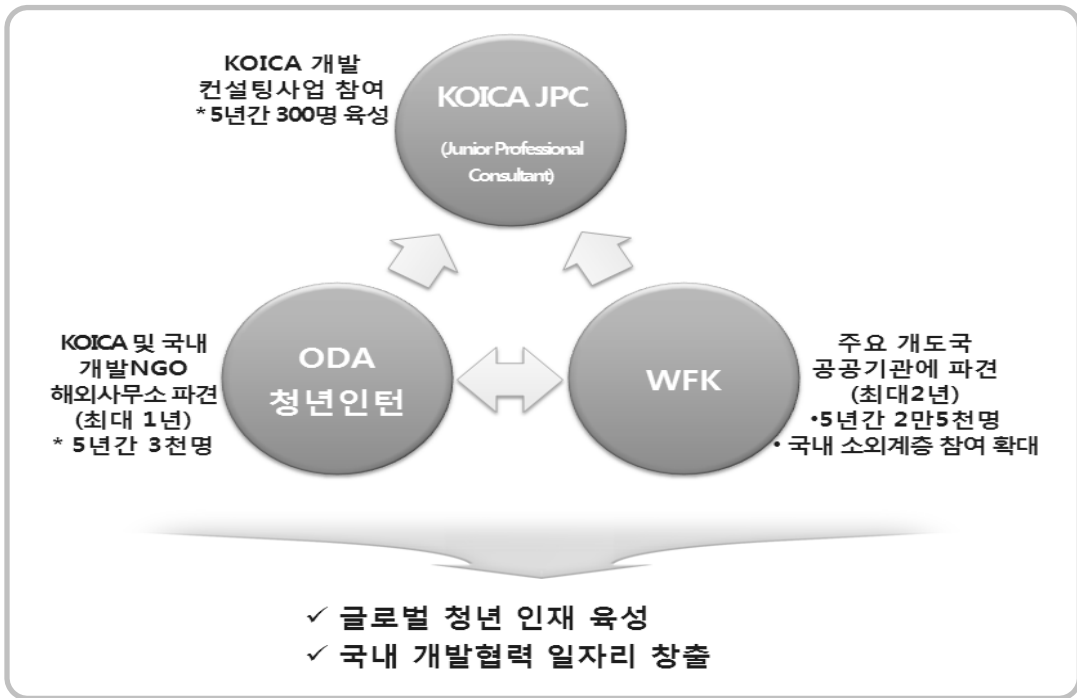
〈그림 4〉 개발협력 3대 전문성



아울러, 인력양성 대상도 잠재적 ODA 전문인력(청년인력 등), 분야별 전문성은 있으나 ODA 사업 수행경험은 부족한 분야별 전문인력(현직인력, 퇴직인력), ODA 및 전문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개발협력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교육 및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청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 청년들의 ODA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OICA 전문가 등급 중 주니어 컨설턴트 등급을 신설하여, 각 사업 시행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니어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이 전문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ODA 청년인턴이나 정부통합 해외봉사단(WFK, World Friends Korea) 사업을 통해 개도국 현장경험 및 원조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이 향후 KOICA JPC(Junior Professional

Consultant)로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글로벌 청년 인재들은 지역전문가와 개발사업 전문가로서 국내 인력들의 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글로벌 개발인재 양성 체계



4. 맺으며

개발컨설팅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우리 원조사업에서 지식기반의 ODA 사업으로 점차 변화되는 환경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내 개발컨설팅사업에서도 KOICA의 DEEP 프로그램은 그 규모나 사업실적 면에서 국내 개발컨설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기에, 앞으로 DEEP 프로그램의 성과가 우리 개발컨설팅 분야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외교부는 DEEP 프로그램을 글로벌 수준의 개발컨설팅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KOICA의 사업유형 중 개발컨설팅사업을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KOICA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DEEP 프로그램이 개발컨설팅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많이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협소한 개발컨설팅 시장으로 인한 잠재적 컨설팅 기관들이 참여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함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발컨설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확대된 시장은 국내 잠재적 개발컨설팅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은 우리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국내 기관의 사업 참여 경험을 축적하여 민간의 개발역량을 강화시켜 향후 UN 및 다자개발은행(MDB) 등이 발주하는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높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기관들이 다시 우리 ODA 사업에 참여하여 결국 우리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원조를 하기 위해 개발컨설팅네트워크를 KOICA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컨설팅 플랫폼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KOICA의 개발컨설팅 네트워크가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의 우수한 개발컨설팅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과의 협력은 필수라 하겠다.

이와 같이, 외교부는 앞으로도 DEEP 프로그램과 개발컨설팅네트워크를 양축으로 DEEP 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 평가와 개발컨설팅네트워크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내 개발컨설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 평가결과,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 박수영 (2012). 개발협력컨설팅 ODA 사업과 공적개발원조 개선방안, KOICA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5호.
- 외교부 (2013).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신뢰외교’ 2013 외교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외교부 (2012). ‘우리의 개발컨설팅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세계로 향하다’ 보도자료.
- 외교부 (2013). ‘우리의 개발컨설팅 개도국 발전의 날개를 펴다’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출범식 보도자료.
- 외교부 (2013). 개발컨설팅 정책방향 외교부 발표자료, KOICA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출범식.
- OECD (2010).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